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7〉

永明智覺壽禪師垂誡(영명지각수선사수계) ①

"애욕 경계를 대하되 집착을 두지않으면 자연히 몸가짐·말·정신을 맑게 할 수 있다"

學道之門 別無奇特
학도지문 별무기특
只要洗滌根塵下 無量劫來業識種子
지요세척근진하 무량겁래업식종자
汝等 但能消除情念 斷絶妄緣
여등 단능소제정념 단절망연
對世間一切愛欲境界 心如木石相似
대세간일체애욕경계 심여목석상사
直饒未明道眼 自然成就淨身
직요미명도안 자연성취정신

도를 배우는 문엔 기이하고 특별한게 없다.
다만 종요로운 것은 육근·육진아래 한량없는 세월동안 익히고 쌓아온 업식의 종자를 씻어내는 일이다.
그대들은 다만 정념을 소제하고 망상인연을 끊어서
세간의 일체 애욕경계를 대하되 마음이 저 목석과 같다면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음)
곧바로 넉넉히(능히) 도안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자연히 신·구·의 업을 밝히게 될 것이다.

若逢眞情導師 切須勤心親近
약봉진정도사 절수근심친근
假使參而未徹 學而未成
가사참이미철 학이미성
歷在耳根 永爲道種
역재이근 영위도종
世世 不落惡趣 生生 不失人身
세세 불락악취 생생 부실인신
纔出頭來 一聞千悟 須信道
재출두래 일문천오 수신도

만약 진정한 스승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간절하고 열심으로 가까이 할지니
가사 참구해도 깨치지 못하고 배워 이루지 못할지라도 오랜동안 이근을 단련하면(다문훈습을 말함) 길이 도의 종자가 되어
세세 생생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며 겨우 머리를 내어놓으매(싹이트는 순간에) 하나를 듣고 천을 깨닫게 되리니(돈오) 모름지기 믿을 지어다.

眞善知識 爲人中最大因緣
진선지식 위인중최대인연
能化衆生 得見成佛
능화중생 득견성불
深嗟 末世 誑說一禪 只學虛頭
심차 말세 광설일선 지학허두
全無實解 步步行有 口口談空
전무실해 보보행유 구구담공
自不責業力所牽 更敎人 撥無因果
자불책업력소견 경교인 발무인과
便說飮酒食肉 不礙菩提
변설음주식육 불애보리
行盜行婬 無妨般若
행도행음 무방반야

참으로 선지식은 사람가운데 가장 큰 인연이라
능히 중생을 교화해서 견성성불케 하나
심히 슬프도다, 말세에 헛소리하는 선객이 다만 빈 화두나 익혀서
전혀 실답게 깨친 바 없어 걸음걸음마다 유위법을 따르면서도, 말끝마다는 공도리를 말하나니
제 스스로 업력에 이끌리는 것을 자책하지는 않고 다시금(나아가) 인과는 고려할 게 없다고 가르치면서
술 마시고 고기 먹는게 보리에 장애되지 않으며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도 반야(지혜)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生遭王法 死陷阿鼻
생조왕법 사함아비
受得地獄業消 又入畜生餓鬼
수득지옥업소 우입축생아귀
百千萬劫 無有出期
백천만겁 무유출기
除非一念回光 立卽飜邪爲正
제비일념회광 입즉번사위정
若不自懺自悔 自度自受
약부자참자회 자도자수
諸佛 出來 也無救處
제불 출래 야무구이처

(그리하여) 살아서는 국법의 규제와 맞닥드리고 죽어서는 아비지옥에 빠지며
지옥 업보가 다 소멸되면 또 축생·아귀계로 들어가 백천만겁에 (사람의 몸 받아)되나올 기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오로지 한 생각 돌이킨다면 그 즉시 삿됨을 뒤집어 바르게 되려니와 만약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닦지 아니하면 제불이 (그대 앞에) 출세 할지라도 또한 그대를 구할 수가 없느니라.

若割心肝 如木石相似 便可食肉
약할심간 여목석상사 변가식육
若喫酒 如喫屎尿相似 便可飮酒
약끽주 여끽시뇨상사 변가음주
若見端正男女 如死尸相似 便可行婬
약견단정남녀 여사시상사 변가행음
若見己財他財 如糞土相似 便可侵盜
약견기재타재 여분토상사 변가침도

만약 (그대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어도 저 목석과 같이 걸림이 없다면 가히 고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술을 마시되 마치 똥·오줌같이 여겨진다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만약 잘 생긴 남녀를 보더라도 시체와 같이 본다면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내 재물 남의 재물을 보더라도 똥이나 흙같이 보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둑질 해도 한 사이가 없을 것이다.)

龍眼

★ 지 상 법 석

사견에 빠지면 여러생 닦아도

진제 스님 〈해운정사 조실〉

"누구라도 선지식 가르침 따라 그대로 행하면 무심경계 도달"

대도(大道)를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하고, 거기에는 온갖 시비, 장단과 가지가지 형형색색(形形色色)의 것이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그렇듯 다 끊어진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득(證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심(大信心)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심을 갖춘 이에게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거니와, 신심이 없고 정법정안(正法正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누구라드 크나큰 신심을 갖추어서, 먼저 깨달은 이가 지도하는 것을 받아들여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해 나간다면, 어려움 없이 바로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견(邪見)에 빠져서 독불장군처럼 공부해 간다면, 일생을 닦고 여러 생을 닦는다 해도 아무 진취가 없는 법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모든 언어와 사량(思量), 분별(分別)이 끊어진 자리인 만큼, 그와 같은 사견(邪見)에서 진일보(進一步)해야만 무심경계(無心境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도의 무심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법(禪法)을 펴려고 하시는데, 상응(相應)하는 자가 없고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림굴(少林窟)에 들어가 묵언면벽(默言面壁)하시다가, 9년 만에야 법(法)을 전해줄 그릇을 만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신광(神光) 스님입니다.

신광이 발심출가(發心出家)하여 대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넓은 중국 천지를 아무리 찾아 헤매었지만 도를 아는 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곳을 찾아가니,

"소림굴에 9년 동안 벽만 관(觀)해 온 한 바라문(婆羅門)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도를 아시는 것 같으니, 그리로 한번 찾아가 보시오."

하고 달마 대사께 인도해 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림굴을 찾아갔는데, 달마 대사께서는 인기척이 있어도 돌아보시는 바도 없고 오로지 벽만 관(觀)하고 계셨습니다.

신광이 예배를 올리고는,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마 대사께서는 그래도 돌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때는 추운 겨울로, 온 산천에 눈보라가 치고 살을 에는 듯한 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광이 소림굴 앞에서 합장을 하고 서 있었는데, 눈이 밤새도록 와서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을 정도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혹한입니다. 그러나 신광 스님은 그 모든 고(苦)를 능히 신심(信心)으로 극복하고, '대도의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그렇게 몸뚱이를 내던지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하룻밤 하루낮이 지나고 나서야 한 번 돌아보시고, 신광이 허리까지 눈이 쌓였는데도 합장을 하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정면으로 돌아 앉으셔서, "그대가 어찌 왔는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고자 해서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는 광대겁(廣大劫)의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고 무한 고통을 이긴 가운데 성취하는 것인데, 너희같이 신심없는 무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려면, 설사 하룻밤 하루낮을 합장한 채로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서 있었다 해도, 그만한 신심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 끝에 신광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단도를 빼서 한쪽 팔을 끊어 바쳤습니다. '신명(身命)을 내던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구합니다.' 하는 발심(發心)을 표시한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그만하면 됐다' 싶으신지 그 때서야 "너의 의심처가 있으면 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광이 말씀드리기를, "제 마음이 항시 불안하오니,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하여 주십시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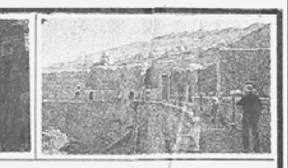
불안한 마음은 신광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달마 대사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광은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찾

약력

- 1931. 2. 21 경남 남해 生
- 52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수료
- 52년 설석우스님 은사로 득도
- 55년 자우스님 계사로 구족계
- 67년 향곡스님 법사로 임제정맥을 법통전수
- 71년 해운정사 창건
- 91~92년 선학원 이사장
- 해운정사 금모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불교 성지 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출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협찬: 대한항공

스리랑카 6일
· 출발: 4월 21일
· 동참금 : 118만원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4월 16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65만원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 · 네팔 10일
· 출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도·네팔·태국 10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낫·스와이앰부낫)—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유식 제공■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 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